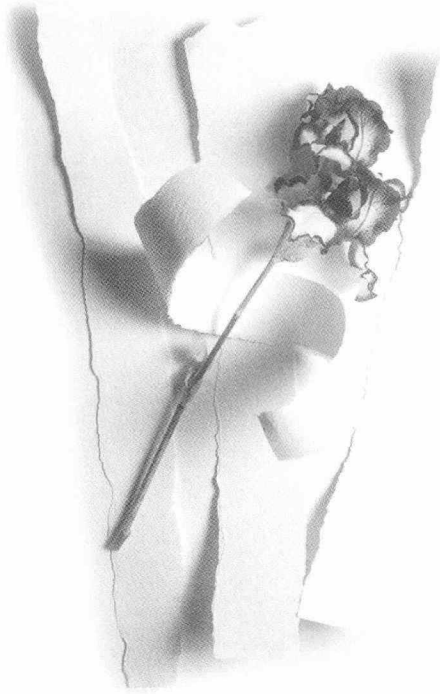


기독교 장례문화

한호협/출판부



3. 바람직한 장례문화

호스피스란 말기 환자 생존 시뿐만 아니라 사후 장례와 남은 가족을 돌보는 데까지 계속 이어지는 활동이다. 이 장에서는 말기환자가 임종한 직후부터 남은 가족들이 직면하는 장례 문제를 다루면서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장례문화는 장례에 임하는 사람들의 죽음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죽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장례절차와 의미, 용어 등이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장례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례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 보면서 바른 죽음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른 죽음관은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1) 다양한 죽음관

- ①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 ②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 ③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 ④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생각
- 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된다는 생각
- ⑥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라는 생각

2) 바른 죽음관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이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음 세상과의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한다.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이들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장례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장례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라는 생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죽음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죽음관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 상호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사용하던 몸은 다음 세상과 연속선 상에 놓이지 않는다. 매장을 하면 약 15년에 걸쳐 흙이 되어 없어지고, 화장을 하면 2시간 안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앞으로 망가진 몸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을 줄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죽음관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전혀 위로할 수 없다. 각 사람의 존재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되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셋째,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떤 영향력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이 장례를 잘 치러 주고 어떤 공을 드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기에 죽기 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고 살아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다.

죽은 이들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살아 있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할 때 잘못된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전통에 억눌리지 않게 되고 죽음의 노예생활에서 자유로워져 정말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가족들이 남은 시간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3) 바람직한 장례문화

장례의 목적은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장례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면에서의 성숙을 이루는데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례는 첫째 겸소하고 간결해야 하고, 둘째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며, 셋째 장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적인 회개와 헌신이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위한 제안

(1) 장례분위기를 어두운 분위기에서 보다 밝은 분위기로 하자.

- 초대교회 :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 '천상의 생일'
- 미국 장로교회 : 죽음과 부활의 예배
- 호스피스 : 천국환송 예배

기독교 장례문화

- (2) 전통적인 장례문화 중 개혁할 부분은 과감히 바꾸자.
- 수의와 상복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 왜 문상 시에 꼭 음식대접을 하여야 하는가.
 - 문상객은 꼭 밤을 새워야 하는가.
 - 아이들도 장례에 적극 참여시키자.
 - 영안실에서 꼭 장례를 치러야 하는가.
 - 장례 시 부의금을 꼭 받아야 하는가.
 - 죽음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 추모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가.
 - 잘못된 죽음관에서 나온 장례용어는 바꾸고 절차는 생략하자.

* 개선되어야 할 장례용어

- 삼우제 → 첫 성묘
- 발인예배 → 장례예배 혹은 출관예배
- 명복 →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 영면 → 소천
- 영결식 → 장례식, 부활예배, 천국환송 예배

(3) 묘지문화를 개선하자.

- 묘지가 국토의 1%, 전체 공장 용지의 3%, 무연고묘지가 약 700만기
- 이제는 화장에 앞서 장기 및 시신기증운동이 더 필요하다.

5) 바람직한 장례절차

기독교 죽음관에 근거한 바람직한 장례절차 및 용어를 살펴본다.

(1) 임종 후

운명 후 임종의식은 수시(收屍)와 예배로 진행한다. 수시는 인체에 있어서 열린 부분(코, 귀, 입, 항문 등)을 솜으로 막고, 양손과 양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으며, 시신을 똑바로 눕혀 놓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다.

(2) 임종의식 후 입관 전까지

임종의식을 마친 후 입관 전까지 시신을 병풍(가능한 한 성경말씀이 기록된 병풍)으로 가리고 병풍 앞에 흰 종이로 싼 작은 상을 놓고 상위에는 떠나신 분의 사진과, 그분이 쓰던 성경과 찬송가를 놓는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는다. 상 앞에 돛자리는 깔지 않고 문상객들을 위해서는 국화꽃을 한 송이씩 상위에 놓게 하며 묵념을 하도록 한다.

* 국화꽃을 상위에 놓는 것은 떠나신 분에게 그 꽃을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떠나신 분의 시신이 있는 곳이므로 좋지 못한 냄새를 제거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없애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경건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 묵념도 역시 떠나신 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장례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 입관 전까지의 준비사항

- ① 장례절차 결정(기독교식, 시신 및 장기 기증, 화장, 매장 등)
- ② 장례일정 결정(입관 및 출관 시간과 장소)
- ③ 사망진단서 발급(5부) : 입관 전까지
- ④ 장지결정(하관시간, 장지에 대한 준비)
- ⑤ 장의용품, 영구차 준비(장지까지 갈 인원 파악)
- ⑥ 부고 소식 알림 - 친지, 친구, 교회 등
- ⑦ 기타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할 책임자 선정

* 시신 기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옮겨가게 한 후 시신 없이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먼저 장례를 치른 후 시신

을 인도하기도 한다. 각막기증의 경우에는 사후 6시간 안에 먼저 적출을 하고 장례를 치른다.

참고로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중 각막만 기증이 가능한데 간염, 에이즈, 매독, 패혈증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도 기증이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02-2277-9952)에서 총괄적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관리하고 있고, 시신은 각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직접 기증할 수 있다.

(3) 입관의식

입관은 운명 후 24시간이 지난 후 시행한다. 입관의식은 염습(뉘고 옷 입히는 것)과 예배로 이루어진다. 가로 2.5m, 세로 3m 크기의 삼베로 만든 세마포 수의를 활용하여 입관한다.

(4) 출관의식

출관의식은 예배와 운구로 진행된다.

(5) 하관의식

- 매장 : 예배와 복토(柳)로 진행된다.
- 화장 : 예배와 화장 순서로 진행된다.

(6) 장사 후 의식

첫 성묘, 추모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① 첫 성묘 : 보통 3일 만에 가는데 주일을 피해 적당한 날을 선택하여 묘지 상태를 돌아보고 예배를 드린다. 화장의 경우는 가족들이 적당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② 추모식(히브리서 11-12장 근거) : 추모의 목적

- 떠나신 분이 땅 위에서 살아오신 과거를 다시 돌아본다.
- 떠나신 분이 살아 계실 때에 후손들에게 미친 좋고 나쁜 면들을 되새겨 본다.
-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